

LCD패널 영업실적 연말까지 상승

디스플레이서치, 판매가격 12월까지 강세 ... 14.1인치 노트북용 104달러 유지

LCD 패널 판매가격이 연말까지 강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등 각 생산기업의 LCD 분야 영업실적도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의 최근 LCD패널 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4.1인치 노트북용 패널 판매 가격은 9월에 2007년 최고인 106달러를 기록한 뒤 11월까지 동일한 가격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104달러 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15.4인치와 17.0인치 노트북 패널도 10월 들어 각각 2007년 최고 수준인 108달러와 130달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월까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다가 12월 106달러와 127달러 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모니터용 17인치와 19인치 제품 역시 10월에 이어 11월까지도 2007년 최고인 136달러와 158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12월부터 133달러와 155달러 정도로 소폭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TV용은 32인치 패널도 6개월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11월까지 2007년 최고인 324달러 선을 기록하다가 12월 319달러 선에서 주춤할 것으로 관측됐다.

37인치는 11월까지 439달러를 유지하다 12월 432달러로 하락하고, 40인치도 10월 509달러에서 11월 507달러, 12월 505달러 선으로 소폭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큰 낙폭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다만, 42인치는 11월까지 532달러 선을 유지하고 12월 들어 523달러로 크게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다소 큰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디스플레이서치가 최근 발간한 2007년과 2008년의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 관련 보고서에서는 2007년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서고 2008년에는 LCD 시장 규모만 1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LCD 생산기업 관계자는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LCD 패널 판매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각 생산기업의 해당 분야 실적도 3/4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는 양상”이라면서 “2007년 말까지 지속되면 2007년 전체 실적을 양호하게 이끄는 데 적지않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09>